



정교회주보

제2475호

2024.06.02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메테오라의 수도원 지역> 그리스 칼람바카에 자리한 메테오라는 마치 솟아난 듯한 거대한 바위기둥 위에 지어진 수도원 공동체 지역이다. 13~14세기 무렵 바위 꼭대기에 24개의 수도원이 세워졌지만, 지금은 8개의 수도원이 남아 있으며, 이 중에 남자 수도원 4개와 수녀원 2개 등 총 6개만 방문 가능하다.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으로 등재되었다.

부활 후 제5주일
(사마리아 여인 주일)
성 니키포로스 주교고백자
성 에라즈모스 사제순교자
(제4주 • 조과 복음 7)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운명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던 인간 본성을 괴롭히는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우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인 모든 고통 때문에 우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은 이 고통을 수용하십니다. 그분의 고통은 세상의 고통에 대한 그분의 분담입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구세주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이파 사람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야파의 집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분을 부정했던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마태오 26,75 참조)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1, 2, 3 응송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부활절 의식서 16
- 부활 입당송 " " 38
- 제4주 부활 찬양송 82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부활절 의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1,19~30 ..254
- 복음경 : 요한 4,5~42 100
- 성모송 부활절 의식서 26
- 영성체성혈송 " "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서로를 바라보는 기쁨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요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즉흥적이고 손쉽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넘쳐나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이를 반영하듯이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조차도 애 어른 할 것 없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을 뿐 동행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핸드폰에 열중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사람은 원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아담이 혼자 창조되었을 때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브가 창조되면서 “이 여자 나의 뼈요, 내 살이구나”하며 이브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짓는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 희망, 슬픔, 좌절, 간절함, 분노, 기대 등에 대한 감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해로 인한 불화가 생기게 된다.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의 수사가 어느 날 사막을 지나가고 있을 때 길가에 텅굴고 있던 백골을 보고 대화를 나눈 일화가 있다.

성인이 백골에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백골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내 이웃과 등을 맞대고 묶여있어 서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홀로 외톨이로 지내는 청년도 많고 노인들이 홀로 살다가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슬픈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화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 시어 우리를 대해주시듯이 나의 이웃에게도 기쁜 얼굴로 다가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며 위로해주는 일이야말로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일이다.

성인들의 기쁨 2

니코폴리스와 프레베자의 멜레티오스 대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생각

드 말할 것도 없이, 죄가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곧바로 우리는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평화와 평온함과 고요와 평정심을 가져오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위에서 첫째의 것은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인 기쁨입니다. 둘째의 것은 육체와 영혼의 정념(파토스)를 따라 이루어진 기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 곧 그리스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어떤 다른 종류의 기쁨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기쁨을 찾지 않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거나 똑같이 행복을 느낍니다. 금식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똑같이 행복을 느낍니다. 사별

(死別)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다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거나 똑같이 행복을 느낍니다. 내면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죄는 사람의 영혼과 양심 속에 혼란과 폐해(弊害)를 남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날 때, 영혼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슬퍼지고 비통한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아무리 지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꾸민다 해도 자기 영혼의 신음 소리를 없애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는 실제로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곧 자신에게 “당신의 삶과 일은 형편없으니,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양심의 소리를 잊기 위해서 합니다. 더군다나 죄의 기쁨을 찾으려면 찾을수록 그의 영혼은 그 아픔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큰 죄를 찾게 됩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안식 2주기 추도식

다음 주일(9일)에는 안식 2 주기를 맞아 가평 수도원과 모든 성당에서 추도식이 성찬예배에 이어 거행됩니다.

수도원에서는 9시 초과, 10시 성찬예배 다음에 추도식이 묘소에서 거행됩니다.

수도원의 추도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가티 수녀에게 수요일(5일)까지 연락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후보 공지

주보 1면에 연재되었던 아토스 성산 20개 수도원에 이어 그리스 메테오라의 수도원을 이번 주보부터 소개합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

지난 5월 25일(토),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박 비탈리 아기가 세례성사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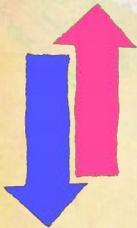
■ 서울 성당 세계 음식 축제

지난 5월 26일(주일)에 열렸던 ‘먼나라 이웃나라 음식 축제’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스, 러시아, 레바논, 미국, 캐나다,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다채로운 고유 음식이 판매되었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축제에 참석한 방문객들에게 정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5월 26일(주일), 릴리아 사모(로만 대신부 부인)의 어머니 마리아 교우가 안식하셨습니다. 사모님과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고인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내 영혼이 천국을 맛본다면...

어떤 스키티의 수도자들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사부 중 한 분 주위에 모였다. 그리고 한 수도자가 사부에게 물었다.

“왜 영혼은 하느님의 약속에 이끌리기보다 세상의 속임수에 더 쉽게 휩쓸리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일세, 믿음을 통해 영혼이 천국을 맛본다면 세상의 헛된 것에 휩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네.”